Packaging Training Programs for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t the Japan Packaging Institute

JPI의 인재육성사업

古屋 一 / 공익사단법인 일본포장기술협회 상근고문

Ⅰ. 서론

일본포장기술협회(이하 JPI)는 1963년에 창립되고, 같은 해 일본 통상산업성(현재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사단법인으로써의 인가를 받고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협회가 목표로 한 것은 ①공업회와의 차별, ②지역적 협회 조직과의 차별, ③물류 · 상류 단체와의 협력 추진, ④국제화에 대한 대응 등 4가지 점으로, 특히 강조된 것이 당시 선행해 설립된 많은 공업회와의 차별화였다. 협회는 포장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관련한 모든 분야를 망라해 관민산학 · 공사 · 단체개인 등을 불문해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한다고 당시 기록에 남아있다.
이후 이 '종합적'이라는 단어가 사업은 물론, 다양한 장면에 등장한다. 먼저 당시 이 '종합적'이 논의된 것이 ①포장산업의 기반 확립, ②포장인재의 육성, ③포장기술의 혁신이라는 3가지 협회사업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가진 사업을 구축하고,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 이상이 걸려 대략 정리한 사업이 도쿄국제포장전(도쿄팩)과 포장관리사강좌로, 양 사업은 모두 1966년에 시작, 협회의 상징이 되는 큰 기둥으로 성장해왔다.

Ⅱ. 연수활동에 대한 이념과 포장관리사 강좌의 탄생

포장관리사 강좌 개설의 목표는 3가지였다. 당시 포장인재라고 하면 기술사뿐으로, 수험자격이 까다롭고 이과계로 한정되었었다. 이 기술사제도는 정부가 시행하기 때문에 수강을 위해서는 ①7년 포장 실무경험, ②이화학 전문학교(이공과대학) 졸업자라는 수험자격이 필요했다. JPI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도록 수험자격을 넓혀 문과계는 물론, 고졸 학력을 가진 26세 이상의 사람, 포장관련 업무경험 연수를 4년 이상으로 했다. 두 번째로 기술사제도는 시험만 봤지만, 포장관리사 강좌는 자격 인정이 중

World Packaging

점이 아닌, 강의 및 연습을 한다는 교육 내용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포장관리사'의 칭호를 수여하는 것으로 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통신강좌로는 책임 있는 교육 육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일제의 대면교육을 적용했다.

이상으로 오랜 실무경험과 자습 자득한 정확한 학식과 성실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엄선해 신뢰도 높은 포장인재를 포장관리사로써 세상에 배출, 일본 포장근대화의 추진체로서 그 규범이나 지침이 되는 것을 강좌의 큰 목적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목표가 적중해 이 강좌에 대한 참가자가 전국적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다. 강좌 개강 수년 후, 연수를 추진하는 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코멘트가 왔다.

> 협회는 '포장도 결국 사람이다'라는 기본자세를 통해 '포장'을 하고,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풍부하고 평화로운 국가 만들기를 추진하는 동료를 한사람이라도 많이 육성하기 위해 연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다.
> 1.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고, 기업 내 및 회사에서 포장전문가로써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 2.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고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차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포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다.
> 3. 필요한 지식의 습득에 노력하고 스스로 배우고, 업무 중 실천해가는 것을 통해 보다 고도의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인재를 육성한다.

일본은 전후 30~40년간 고도성장시대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 1984년 일본 포장산업의 규모(포장 · 용기 출하금액과 포장 관련 기계의 생산금액)는 약 5조 엔을 넘어서며 미국의 뒤를 잇는 자리를 차지했다(2017년의 동 규모는 6조 1,000억 엔). 그동안 포장 관련 단체에 의한 인재 육성 연수가 잇달아 개설되었다. 각 기업에서는 기업활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인재 육성을 기업 내 교육 속에서 실시했는데, 포장이 재료나 내용물의 특성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한 기업의 사내 교육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인적, 비용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도 불가능했다. 특히 포장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독자로 연수 등을 통해 인재 육성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기업 내 교육의 일환으로써 각 단체가 진행하는 교육 연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협회의 연수사업도 이러한 정세를 파악하고, 포장관리사 강좌와 같은 종합연수 외에 포장 경험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코스나 전문기술을 취급하는 코스 등 단기적인 전

문 코스를 개설했다. 당시 협회가 강조한 교육연수의 내용은 ①각 전문 영역에서의 새로운 지식, 정보 등의 취득, ②전문 외 지식, 정보 등의 취득, ③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훈련, ④영업 판매를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훈련 등을 주로 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의 연수활동에서도 기본적인 개요가 되고 있다.

III. 포장학과 설치 좌절과 포장상급코스의 설치

이처럼 포장분야에서 체계적 커리큘럼을 갖추며 JPI는 많은 실적을 쌓았다. 그런데 포장은 광범위한 분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학이나 전문학교 등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취급하는 것이 어려웠다. 결국 포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협회나 각종 단체, 나아가 연수를 하는 기업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변화가 심한 산업사회에서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향상에 대한 공부는 필수로, 정보 수집이나 학습을 게을리 하면 전문지식과 기술은 바로 휴지조각이 되었다. 항상 새로운 발상이 요구되고, 포장분야에서의 기술 진보와 발전은 눈부셨다. 더욱이 포장은 생활문화로써 일상생활에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를 둘러싼 변화와 니즈에 즉각 반응한 새로운 포장 형태의 창조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장인은 포장기술의 개발 개선은 물론, 생활문화로써의 포장은 어떠한가를 생각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가 각 분야에서 요구되었다. 또한 해마다 국제 관계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학실력은 기본이고, 국제화에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사고의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

1970년에 게이오대학의 후지이 미츠오 교수가 협회 기관지 '포장기술'의 권두언에서 '포장학회에 관한 사견'을 주제로 기고를 했었다. 후지이 교수는 협회의 인재육성 활동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포장이라는 것이 복잡다단해 모든 방면의 과학이 관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학회적 색채를 강화하고, 학회적 지위를 쌓아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후지이 교수는 학회 설립의 필요성을 서술한 최초의 사람이다. 그 후 22년이 흐른 1992년에 일본포장학회가 탄생했다.

경제 성장과 함께 포장산업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류에 적합한 포장이 개발되어야만 한다.

특히 포장관계자들은 사회의 니즈에 대응한 포장의 개발이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도의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배

경을 바탕으로 협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수년간 포장학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보다 전문적이고 아카데믹한 내용을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각 분야로부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학과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 다양한 대학에 제안했지만, 학과가 설치되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중급코스로 정착해가고 있는 포장관리사 강좌의 상급코스를 만드는 것이었다. 1981년에 고도의 새로운 기술 촉진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포장실무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포장아카데미' 코스를 시작, 제1회로 '포장설계코스'가 개최되었다. 이후 회사의 변화나 요청 등에 따라 새로운 테마를 만들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아카데미 코스의 큰 특징은 전문분야별로 나누고 소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것으로, 매월 1회의 강의가 10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스스로 배우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1기 포장관리사 강좌의 개최 개요(1966년)

1. 코스 상업포장코스 : 상업포장관리사로써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공업포장코스 : 공업포장관리사로써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간 전기 1966년 7월 4일~23일
   후기 1966년 10월 10일~29일
   * 전기는 포장관리사로써의 기초 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강의형식으로 한다.
   * 후기는 포장관리사로써의 실무를 연습형식으로 한다.
3. 모집인원 30명(상 · 공업포장코스 각 15명/자격심사 상 결정)
4. 수강자격 구제 중학, 신제 고교 졸업 이상 기초학력을 가지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과 소속사업소의 추천이 있는 자. 또는 본 협회가 특별히 인정한 자.
5. 강좌 내용

〈상 · 공업포장코스 공통과목〉

유통경제학, 디자인 총론, 물적 유통관리, 포장공학 등

〈상업포장코스 · 전기 & 후기〉

패키지 디자인, 종이 · 지기, 인쇄, 제도 연수, 포장기능 연습, 디자인 연습 등

〈공업포장코스 · 전기 & 후기〉

종이 · 가공지, 나무상자, 골판지, 창고, 화물시험, 방청관리, 제도연습, 표준화 등

World Packaging

IV. 포장관리사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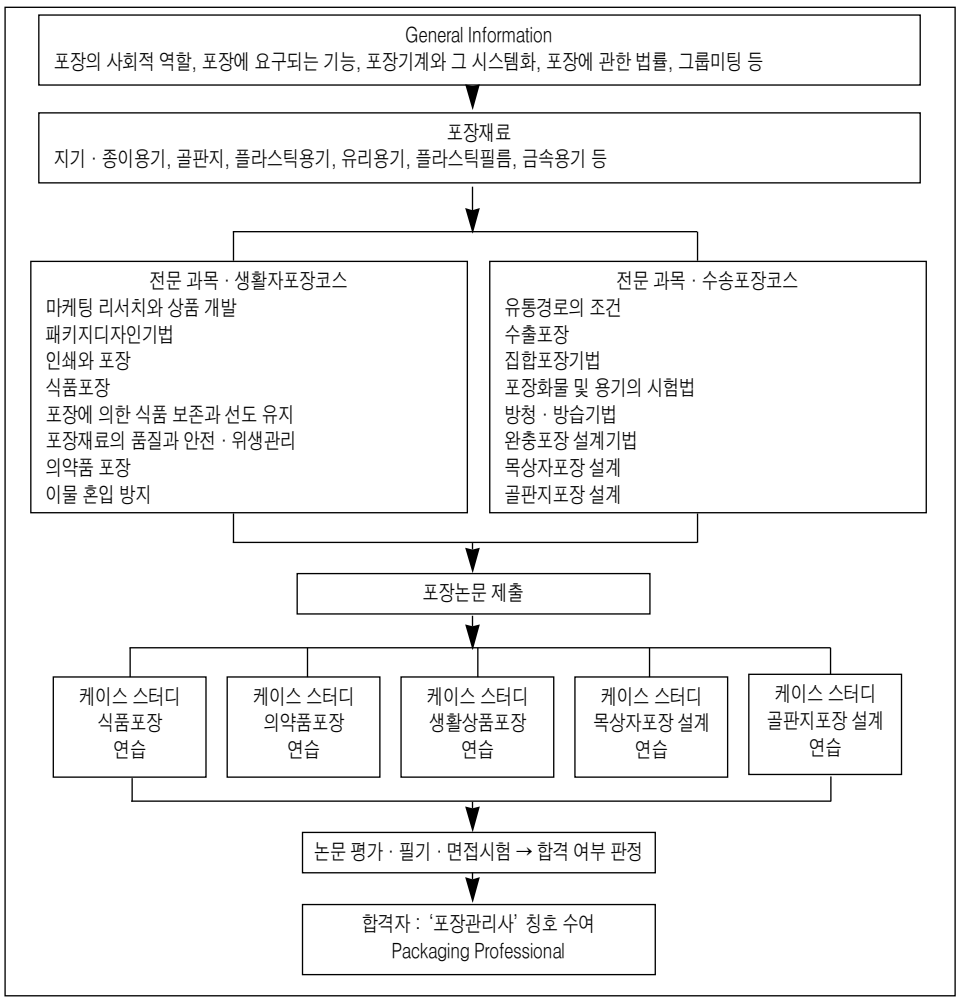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전인 1966년 시작한 제1기 포장관리사 강좌는 당시로서는 이례적으로 공통코스 수강 후에 상업포장코스와 공업포장코스로 양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시작부터 현재 강좌의 기초가 되었다.

제1기 포장관리사 강좌의 개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당시 각각의 코스에 '연습'이라는 과목을 설치한 것도 큰 특징이다. 상업포장코스에서는 치바대학의 교수나 구와사와디자인연구소의 교수 등이 담당하고, 공업포장코스에서는 주로 개인 포장전문가가 담당했다. 이 '연습'은 현재의 '설계'에 해당한다.

이 제1기의 포장관리사 강좌의 수강자는 30명으로, 25명이 합격해 제1기 포장관리사의 칭호를 받은 기록이 남아있다.

[그림 1] 포장관리사 강좌의 개요



World Packaging

강좌 개강의 목표나 목적은 앞에서 서술한 것과 같고, 현재 수강 연령이 22세 이상이 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변화는 없다. 현재 포장관리사 강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개설되고 있다.

① 수강생과 연수위원이 합숙연수를 통해 목적의식을 명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면서 의의 있는 교류를 한다.

② 일반강의는 수강생에게 가장 가까운 회장으로 해 효율이 좋고, 폭넓은 습득이 가능하다(삿포로, 센다이,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의 6개 회장에서 개최).

③ 케이스 스터디에서는 선택 코스별로 포장을 실제로 기획, 설계, 작성하고, 그룹에 의한 토의, 발표, 평가를 하고, 실무에서 즉각적인 체험을 습득한다.

2017년도(제52기)의 강좌에서는 417명의 수강응모가 있었고, 결과로써 419명(전기부터의 연속 수강자 포함)이 합격해 '포장관리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52기를 통해 13,492명이 포장관리사 칭호를 받은 바가 있다. 현재 하고 있는 포장관리사 강좌의 커리큘럼 개요는 [그림 1]과 같다.

Ⅴ. 포장아카데미코스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포장관리사 강좌는 중급코스로 정착하고 있고, 상급코스로써 정착하고 있는 것이 '포장아카데미'이다.

이 아카데미 코스는 전문분야별로 나눠 각 코스 15명 정도의 소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매월 1회의 강의가 약 10개월 이어지는 것이 큰 특징이 되고 있다. 수강 후에는 제출된 논문의 심사를 통해 합격자에게는 '포장 부사'의 칭호가 수여된다.

또한 연수 내용이 매우 수준 높기 때문에 수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수강자격이 있다.

(1) 포장관리사 강좌를 수강해 포장관리사 칭호를 취득한 자로, 소속사업소의 대표자 또는 상사의 추천이 있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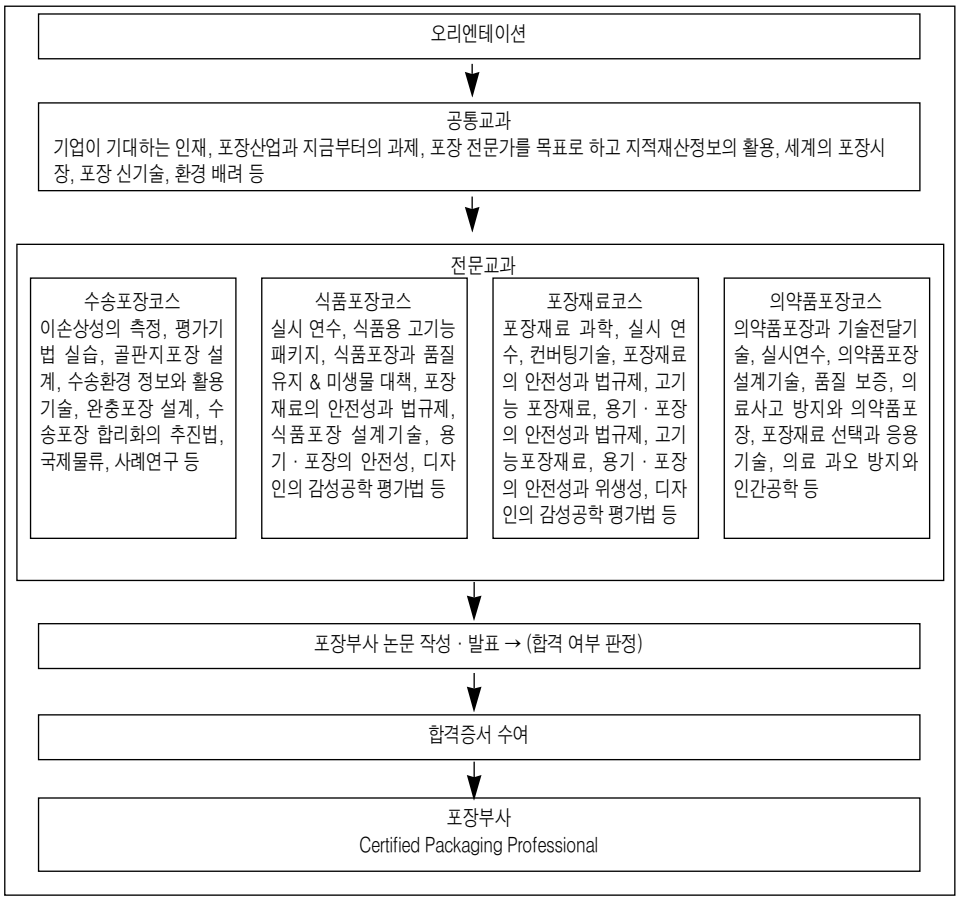
(2) 포장관리사 미 취득자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28세 이상으로 포장관련 업무에 6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소속사업소의 대표자 또는 상사의 추천이 있는 자

(3) 상기 이외로 연수위원이 특별히 인정한 자

처음에는 포장설계코스(수송포장)가 주가 되었는데, 시대 변화와 함께 포장설계의 명칭이 바뀌었다.

현재에는 수송포장코스, 식품포장코스, 의약품포장코스 및 포장재료코스의 4가지 코스로 구성, 각각 3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2]).

[그림 2] 포장아카데미코스의 개요



2017년도는 제31기 수송포장코스(수강생 6명), 제32기 식품포장코스(수강생 14명), 제31기 포장재료코스(수강생 19명), 제30기 의약품포장코스(수강생 19명)의 4가지 코스가 개강했다. 2017년에는 수강자 전원이 전 과정을 수료하고, '포장부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2017년도까지 1,296명이 포장부사의 칭호를 받은 바가 있다.

VI. 단기전문코스

일본포장기술협회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포장관리사 강좌'와 '포장아카데미' 코스와 같이 수료자에게 자격 칭호를 부여하는 지속적 교육코스 외에 포장에 지금부터 관련하는 사람에 대한 입문강좌로써 '포장신인연수코스'를 1박 2일의 커리큘럼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포장기초코스'는 포장 전 분야에서 체계적 입문 및 실천코스로써 정착, 이미 제

World Packaging

46회째 개최되고 있다. 5일간의 커리큘럼으로, 포장관리사 강좌의 수강을 서서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적의 내용이 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연수 코스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단기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전문과목별 육성코스로, 현재는 '플렉시블 패키지', '완충포장설계', '골판지포장설계', '식품포장' 의 4가지 전문코스가 실시되고 있다. 각 코스의 실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포장신인연수코스(1박 2일)

입사 1~2년차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장에 관련해갈 사람이 대상.
포장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부터 최근 포장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예컨대 최근에는 환경문제나 법률문제 등)까지 알기 쉽게 해설한다. 또한 1박의 합숙을 통해 수강생간 교류를 깊게 하고 앞으로의 네트워크 만들기를 조장한다.

2) 포장기초코스(5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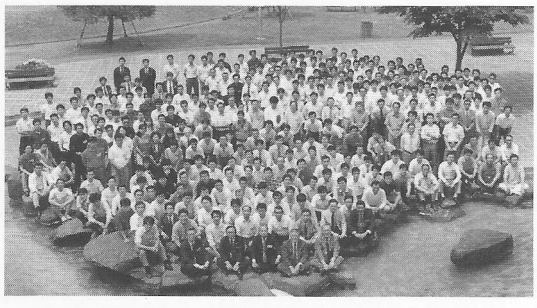
2017년에 50회째 개최된 역사가 있는 코스로, 입사 3년차 이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포장에 관계하는 사람, 또는 새롭게 포장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대상.
포장 전 분야의 체계적 입문 및 실천코스로, 5일간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장관리사 강좌를 수강할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최적의 내용이 되고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고 실시하는 케이스 스터디는 체험적 학습으로써 인기가 높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하고 있다.

3) 플렉시블패키지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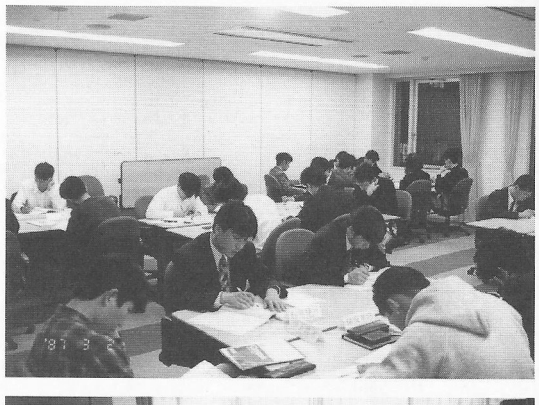
연포장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대상.
플렉시블 패키지의 포장설계를 위한 기본적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렉시블 패키지의 정의에서부터 플렉시블 패키지를 둘러싼 문제까지 폭넓게 해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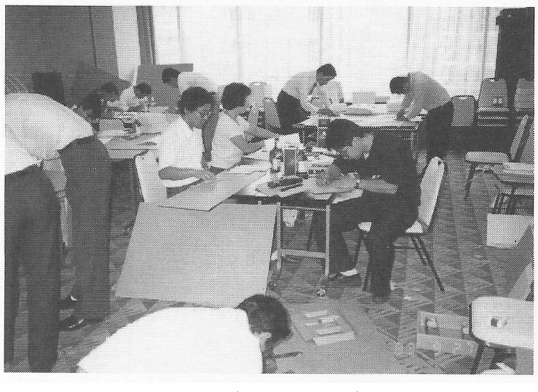
4) 완충포장설계코스

수송포장 설계에 관련한 중견 클래스의 사람이 대상
완충포장의 목적, 역학기초, 설계기법을 실제 완충설계 프로세스에 따라 해설한다. 텍스트로 수록된 대표적인 완충포장 설계의 실제 예인 설계도, 사진 및 시험데이터 등은 중견 클래스의 사람들이 실무서로써 활용할 수 있다.



<포장관리사 강좌는 1966년에 시작, 25명이 포장관리사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이후 지금까지 1회도 빠짐없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72년에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개 도시에서 개최되었는데, 1974년에는 삿포로, 1976년에 후쿠오카가 더해져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1986년의 제21기에서 포장관리사는 3,000명을, 2000년의 제35기에서 7,000명을 돌파했다. 그리고 2017년의 제52기를 끝으로 현재까지 13,492명의 포장관리사가 탄생했다. 사진은 1989년 유가와라에서 개최한 합숙에서의 기념촬영>





<연수 프로그램 속에서 실습(케이스 스터디)을 하고, 그룹별로 나눠 의논을 하면서 적절한 패키지를 창조하는 경우가 많다. 강의에 이은 실습은 강의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아는 가장 적절한 수단임과 동시에 이종업의 교류를 도모하는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사진 위는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는 포장신인연수코스의 그룹 검토 모습. 사진 아래는 골판지포장설계코스에서의 그룹 작업 모습. 모든 그룹은 이업종의 멤버가 조합되고 있다.>

5) 골판지포장설계코스(2일간)

지금부터 골판지포장 설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골판지에 관련하는 지식의 취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대상.

2일간의 연수코스로, 1일째는 주로 골판지 기초지식과 포장설계에 필요한 지식에 관해 해설하고, 2일째는 하루 종일 사례별 그룹으로 나눠 골판지상자를 시작하고, 그룹 간 발표, 토론하고 있다. 도쿄 및 오사카에서 개최.

6) 식품포장코스(5일간)

포장경험 연수 4년 이상으로, 식품포장에 관한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대상.

식품포장에 필요한 지식과 최신 정보에 관해 월 1회 빈도로, 총 5회 강의를 한다. 식품포장의 기본적인 역할에서부터 식품포장의 근미래상까지 폭넓은 내용의 해설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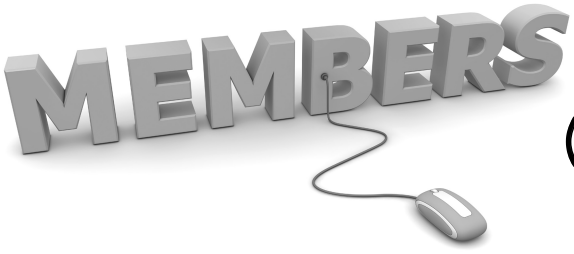
VII. 결론

지금까지의 인재육성 활동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수활동을 소개했다. 이들 활동 외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다수의 세미나나 강습회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본부(도쿄)는 물론, 각 지부(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에서도 중요한 활동의 일환으로써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학교에서의 포장교육이 매우 빈약하다. 소수의 대학에서 선택과목으로 포장강좌를 개설하고 있을 뿐이다. 대학 및 전문학교에서 포장 전반을 망라한 강좌는 아직 없다. 따라서 포장인재의 육성은 산업계에서는 기업 내 교육이나 전문단체에 의한 사외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갈수록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나 산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각 단체가 하는 교육 연수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전문단체의 교육연수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활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포장산업은 고도화, 다양화 그리고 글로벌화에 적절하게 대응해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차세대 포장인재는 누구이고, 그들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JPI는 이러한 정세를 파악하고, 차세대 인재육성사업에 있어서 다른 분야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등 다각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PW



(사)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길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강건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앞날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친목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KOPA
KOREA PACKAGING ASSOCIATION INC.

(사)한국포장협회

TEL. (02)2026-8655
E-mail : kopac@chollian.net

World Packaging